

보도자료

즉시 배포

아세안+3,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회복력 유지

싱가포르, 2025년 10월 9일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늘 『아세안+3 금융안정보고서(AFSR) 2025』와 『아세안+3 지역경제전망(AREO) 10월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3 지역이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3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4.1%, 2026년 3.8%로 전망되며, 이는 상반기의 견조한 성장 실적과 예상보다 강한 수출 모멘텀에 힘입어 7월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관세 발표 이후 4월에 정점에 달했던 시장 압력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AMRO 수석 이코노미스트 허 동(Dong He) 박사는 “아세안+3 지역에서는 역내 무역과 내수가 점점 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글로벌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수출기업, 특히 미국 수요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기업은 무역 역학의 변화 속에서 수익률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높은 수입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연준(Fed)의 통화정책 운용을 복잡하게 하고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분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아세안+3 경제는 글로벌 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정교하게 조율된 정책 조합과 강한 펀더멘털—견고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장 심화, 풍부한 외환보유액, 가용한 정책 여력—이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억제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되어 중앙은행들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외환 및 자본 흐름 관리 조치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충격의 파급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제공한다. 다만, AMRO는 이러한 지원이 취약 부문에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위험을 넘어, 아세안+3 지역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금융 포용성과 효율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MRO 금융 감시 그룹 헤드 풍사판 룬차나(Runchana Pongsaparn) 박사는 “은행 부문의 디지털화는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포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금융 안정 위험의 성격과 분포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책당국은 각 시장 부문의 성숙도에 맞춰 혁신을 촉진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MRO는 아세안+3가 단기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외 충격의 파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내 시장과 완충 장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책 공조와 금융 협력 및 통합의 심화를 통해 아세안+3는 오늘의 도전을 내일의 기회로 전환하여, 보다 강하고, 더 긴밀히 연결되며, 더 높은 회복력을 갖춘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MRO 최신 주요 간행물인 『ASEAN+3 금융안정보고서 2025』와 『ASEAN+3 지역 경제전망 10 월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끝 -

ASEAN+3: AMRO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2025-2026 년
(퍼센트, 전년 대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아세안+3 (ASEAN+3)	4.3	4.1	3.8	1.2	1.0	1.1
플러스-3 (Plus-3)	4.1	4.0	3.7	0.7	0.6	0.7
중국	5.0	4.8	4.4	0.2	0.0	0.4
홍콩 (중국)	2.5	2.4	2.0	1.7	1.8	1.6
일본	0.1	1.0	0.6	2.7	3.0	2.1
한국	2.0	0.9	1.7	2.3	2.0	1.8
아세안 (ASEAN)	4.9	4.6	4.3	3.0	2.5	2.8
브루나이	4.1	1.2	1.8	-0.4	0.0	0.3
캄보디아	6.0	4.9	5.0	0.8	2.6	2.3
인도네시아	5.0	5.0	4.9	2.3	1.9	2.2
라오스	4.3	4.4	4.2	23.1	8.5	7.6
말레이시아	5.1	4.3	4.0	1.8	1.6	2.0
미얀마	2.9	-1.0	1.5	29.6	30.0	28.0
필리핀	5.7	5.6	5.5	3.2	1.8	3.2
싱가포르	4.4	2.6	1.7	2.4	0.9	0.8
태국	2.5	2.2	1.9	0.4	0.5	0.8
베트남	7.1	7.5	6.4	3.6	3.3	2.9

출처: 각국 정책 당국, Haver Analytics 제공; AMRO 추정.

주: AREO = 『ASEAN+3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f = 전망치. 성장률의 역대 집계치는 2024 년 GDP 구매력 평가 기준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역대 집계치는 단순 평균으로 계산되었음. 미얀마의 GDP 와 인플레이션 수치는 해당 회계연도(기준연도 4 월 1 일~다음 연도 3 월 31 일)를 기준으로 산출됨.

AMRO 소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 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중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3 지역의 거시경제 및 금융의 회복력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MRO 의 주요 임무는 거시경제 감시 수행, 역대 금융 협정 지원,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다. 또한, AMRO 는 역내 지식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세안+3 금융 협력도 지원한다.

문의처:

탄 린 (Lynn Tan)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Communications Officer)

Email: media@amro-asia.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LinkedIn](#)에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